



09-02 (통권 331호)
2009.01.0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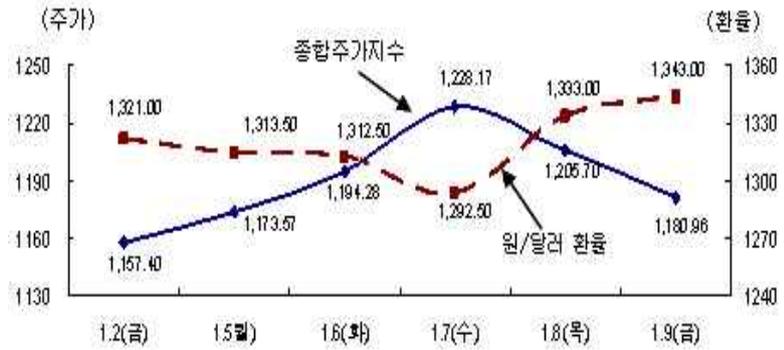
韓國經濟週評



■ 2009년 국내 경제 · 사회 변화의 10대 특징

Better than
the Best!

週間 主要 經濟 指標 (1.2~1.9)



차 례

주요 경제 현안	1
□ 2009년 국내 경제·사회 변화의 10대 특징	1
주간 경제 동향	21
□ 실물 부문 : 생산자물가 둔화세 지속	21
□ 금융 부문 : 원화 환율 상승세 지속	22

□ 본 자료는 CEO들을 위해 작성한 주간별 경제 경영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연구본부 : 유 병 규 경제연구본부장 (3669-4032, bkyoo@hri.co.kr)
 : 이 부 형 연구위원 외 (3669-4011, lbh@hri.co.kr)

Executive Summary

□ 2009년 국내 경제·사회 변화의 10대 특징

1. 개요

2009년에는 세계적인 경기 동반 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국내 경제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2009년에는 정치, 경제, 경영, 사회, 남북경협 등 각 부문에 있어서 경기 침체를 반영한 다양한 특징들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들 가운데 10가지 주요 현상을 선정하였다.

2. 국내 10대 트렌드

첫째, '생산적인 정부, 큰 역할'. 지속적인 규제개혁과 공공부문 혁신, 감세 등으로 정부가 군살을 빼는 생산적인 정부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는 과감하고 신속한 재정지출과 구조조정을 통해 경기 부양과 일자리 창출, 경기위기 조기 극복에 매진하는 큰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녹색경제의 태동'. 기후 온난화 대비 및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한 저탄소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가 크게 늘어나고, 경제 전반의 에너지 효율성 제고 노력이 증대되는 등 녹색경제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녹색 뉴딜사업 추진, 기후변화대책기본법 등 녹색경제 법체계 개선, 탄소배출권 시장 등 녹색시장의 형성, 에너지 절약형 건물 확대 등 경제사회 전반의 에너지시스템 개선, 녹색산업의 신성장동력화 등 녹색경제 태동을 위한 노력이 가속화될 것이다.

셋째, '저절단내(低節單內) IMF형 소비 패턴의 재현'. 경기 불황에 의한 근로 소득 확충 미흡과 자산 소득 감소로 가계의 구매력이 저하되어 지난 외환위기 때와 같은 '저절단내(低節單內)형 소비 패턴'이 재등장할 것이다. 즉, 구매력 급감으로 제품과 서비스 가격이 소비자 구매 행동의 가장 큰 결정 요인으로 작용하는 저가형(低價形) 소비패턴, 구매·사용 과정에서 리스크를 줄이고 개인 효용을 극대화하려는 절약형(節約形) 소비패턴, 전반적인 경제 불황과 사회분위기 침체로 모든 계층의 소비가 부진세를 보이는 단극형(單極形) 소비패턴,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하고자 자가(自家) 내에서의 소비 활동이 증가하는 내가형(內家形) 소비패턴이 증가할 것이다.

넷째, '고용 빙하기의 도래'. 경기 침체 심화로 신규 취업자 수가 감소하는 가운데 기업들의 구조조정이 가속화되면서 고용 부진이 심화되어 고용 빙하기가 도래할 전망이다. 청년층 니트(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족과 청년층 프리터(Freeter = Free+Arbeiter)의 장년화, 고학력의 경력 단절 여성의 증가, 장년층의 정년 단축, 고령자 등 고용 취약 계층의 실업 급증과 같은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다섯째, '해외투자의 국내 귀환'. 생산거점을 해외로 이전했던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경기 침체, 투자 환경 악화 및 기업 간 경쟁 심화에 따르는 고부가가치 산업 보호를 위해 국내로 회귀할 전망이다. 현지 임금, 보험료 등 비용 상승으로 중국 등지로부터 국내 회귀가 증가할 전망이다. 또,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을 자국 내에서 하고 상대적으로 저부가가치 제품은 해외 생산 기지를 활용하는 대기업의 생산 이원화 전략이 등장할 것이다. 더욱이 수도권 공장 규제 합리화 조치나 지방자치단체의 기업 유치 경쟁 등으로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의 회귀가 가속화될 것이다.

여섯째, '효율성 기업경영으로의 복귀'. 국내 경기가 급속히 침체되고 기업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국내 기업들 사이에 '3Re' 경영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비수익 또는 저수익 사업을 매각하고 성장성과 수익성 있는 사업부문으로의 사업구조 재편(Re-Structuring), 감원이나 비용 절감, 불필요한 업무 제거를 통해 업무 처리의 효율화와 신속화를 제고하기 위한 경영시스템 재구축 (Re-Engineering), 위축된 조직을 추스르면서 성장 분야로의 기회 포착을 위해 창조적이면서 열정적인 조직문화를 유인하는 조직문화 활성화(Re-Vitalization)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일곱째, '확장에서 생존으로 사업 전략 전환'. 기업 경기가 급속히 위축되면서 기업들은 '확장형 사업 전략' 대신 '생존형 사업 전략'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생존형 전략'이란 불황기 매출 및 이익 감소의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선제적으로 기업의 사업, 재무, 지배구조를 견고히 하는 일체의 자구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기업들은 적극적인 포트폴리오 재편, 획기적인 비용 절감 노력, 전략적인 리스크 관리 강화의 주요 3가지 실천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덟째, '6R 불황 비즈니스의 성업'. 2009년에는 '6R'로 대표되는 불황 비즈니스가 성업할 것으로 전망된다.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신제품과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수선(Reform)형 비즈니스', 기존 용기에 내용물을 재충전하여 사용하는 '재충전(Refill)형 비즈니스', 중고장터 사업과 같은 '재활용(Recycling)형 비즈니스', 구조조정 등 미래에 대한 위협관리를 자문하는 '위험관리(Risk)형 비즈니스', 경품이나 쿠폰 등으로 고객의 비용을 일부 보상해 주는 '보상(Reward)형 비즈니스', 소득 감소로 인한 심리적 허탈감과 회피 욕구 증가로 로또, 경마 등 '오락·도박(Roulette)형 비즈니스'가 성행할 것이다.

아홉째, 'D-트라우마(Depression Trauma) 현상 확산'. 미국 발 글로벌 경기 침체가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의 상황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우려가 공포 '및 사회문제로 전이되는 D-트라우마(Depression Trauma)현상이 확산될 것이다. 불황으로 부유층과 서민층의 격차 확대로 경제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사행사업의 성행 등이 예상된다. 또, 경제적 어려움 및 사회적 불만으로 인해 범죄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 더욱이 가계의 경제적 어려움이 증가함에 따라 가정 파탄이 증가할 가능성 또한 높을 것으로 보인다.

열째, '대칭적 상호주의 남북 관계 추구'. 대칭적 상호주의에 의한 남북 관계 추구로 경협 위축이 우려된다. 남북경협을 남북 간 상호 공정하고 호혜를 강조하는 대칭적 상호주의 원칙과 보다 더 철저한 법제도에 기반해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북핵 및 북한 인권과 연계된 경협이 강조되고, 지원성 물자 감소에 따르는 상업적 교역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남북 경협의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이 경주될 것이다. 또한 북핵 협상 지연과 남북 관계 경색 지속 등으로 2009년에도 남북 경협은 제한적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3. 시사점

2009년 국내 10대 트렌드는 정부와 기업 모두에게 위협요인이자 기회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기업은 부정적인 영향은 극복하고, 기회요인은 적극 활용함으로써 국내 경제 성장은 물론 기업의 지속 발전이 가능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정부 부문)

첫째, 대규모 공공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원을 원활히 조달하고, 건설부문과 비정규직 중심의 일자리 이외에 또 다른 좋은 일자리도 다수 창출할 수 있는 전략의 보완이 필요하다.

둘째, 녹색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녹색 부품소재산업 활성화, 녹색 금융시스템 구축, 녹색 인력 양성 등이 시급하다.

셋째, 개성공단 활용을 통한 국내 회귀 기업 유치,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기업의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지원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창업 분위기 조성, 일자리 나누기 (Job Sharing), 임금피크제 도입 등 고용 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들에 대한 지원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현 국면 타개를 위한 돌파구로서 남북경협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신정경분리 원칙하에 경협 활성화를 위한 기반 확충 노력이 절실하다.

(기업 부문)

첫째, 호황기에 기업이 큰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위기 하에서 성장과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3Re 경영을 적극 전개는 것이 필요하다. 또, 녹색산업과 신성장동력에 대한 투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둘째, 단순히 생존을 위한 경영 축소에만 관심을 갖지 말고, 기업 경영의 비효율 부문을 제거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구조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소비자의 지출 패턴 변화에 대응하여 단순형, 저가형 제품 개발에 주력할 필요가 있으며, 생산성과 효율성 제고를 통해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넷째, 제조업은 제품개발을 개선 (Reform), 재충전 (Refill) 중심으로 전환하여 상품 다양성과 경쟁력을 확보하고, 소비촉진을 위해 보상형 (Reward) 비즈니스 촉진 방안을 활용해야 한다.

1. 개요

-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국내 정치, 경제, 경영, 사회, 남북 경협 분야의 새로운 양상을 분석하여 2009년 각 부문에서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10대 현상을 선정함
- 2009년 국내 정치부문에서 가장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되는 트렌드는 ‘생산적인 정부, 큰 역할’임
- 경제 부문에서는 ‘녹색경제의 태동’, ‘저절단내(低節單內) IMF형 소비 패턴의 재현’, ‘고용 빙하기의 도래’, ‘해외투자의 국내 귀환’이 선정됨
- 경영 부문에서는 사업구조 재편(Re-Structuring), 경영시스템 재구축(Re-Engineering), 조직문화 활성화(Re-Vitalization)라는 ‘효율성 기업경영으로의 복귀’, 경기의 급속한 위축으로 인한 ‘확장에서 생존으로 사업 전략 전환’, 수선(Reform), 재충전(Refill), 재활용(Recycling), 위험관리(Risk), 보상(Reward), 오락·도박(Roulette)의 ‘6R 불황 비즈니스 성업’의 3개 트렌드가 선정됨
- 사회 부문에서는 미국발 글로벌 경기침체가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의 상황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우려가 경제 불안 심리 증대·사회범죄 문제로 전이되는 ‘D-트라우마(Depression Trauma) 현상 확산’이 선정됨
- 남북 경협 부문에서는 ‘대칭적 상호주의 남북 관계 추구’가 2009년 주요 예상 현상으로 선정됨

2. 국내 10대 트렌드

① 생산적인 정부, 큰 역할

○ (의미) 지속적인 규제개혁과 공공부문 혁신, 감세 등으로 정부의 군살은 빠지만('생산적인 정부'), 과감하고 신속한 재정지출과 구조조정을 통해 경기부양과 일자리 창출, 그리고 경제위기의 조기 극복에 매진함(큰 역할)

- **지속적 규제완화와 공공부문 경쟁력 강화** : 부동산 거래활성화와 수도권 투자확대,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공기업 선진화와 공공부문 혁신을 통해 정부·공공부문의 군살을 제거함

- **위기극복을 위한 정부 역할의 확대** : 건설업, 조선업, 금융업을 중심으로 한 신속한 구조조정 작업에 선제적으로 개입하고, 과감한 적자재정과 정부지출 확대를 통해 적극적으로 정부의 역할을 확대함

○ (내용) 과거에는 작은 정부를 주장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部署, 인력, 규제를 늘려왔다면, MB정부는 공기업 선진화와 규제개혁을 실천함과 동시에, 과감한 적자재정과 경기부양에 적극 나설 것으로 전망됨

- **지속적인 규제개혁과 공공부문 혁신** : '작은 정부, 큰 시장'을 표방하고 집권한 MB정부는 2009년에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와 공기업 선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

· 2009년에는 총리실의 규제개혁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부동산·수도권·기업활동·서비스산업 등과 관련된 규제를 대대적으로 개혁할 것으로 보임

· 아울러, 농협·수협의 개혁과 구조조정을 필두로 공기업의 선진화를 강력히 추진함으로써, 공공부문의 군살을 제거할 것으로 전망

-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 : 지속적인 감세와 대규모 재정지출로 인한 적자재정을 감수하고, 이를 통해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유인할 것임

· 2012년까지 그린 뉴딜사업으로 50조 원을 투입하는 것과 같은 대규모 감세 및 재정지출을 통해 경기침체의 조기 탈출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 외환위기와 현재의 경기 부양 정책 비교 >

구분	2008년 경제위기 극복 대책 (총51.3조원 경기부양, GDP 5.8%)	1997년 경제위기 당시 (약165조원 공적자금 투입)
감세	▶ 유가환급금(08~09년),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 등 감세 35.3조원(08~12년)	감세 없었음 (대규모 세수 감소로 감세여력 부족)
재정지출	▶ 추가경정예산(08년), 경제난국 극복 수정 예산(09년) 등 재정지출 확대 16조원 ▶ 그린 뉴딜사업(09~12년) 50조 원	당시 IMF에서 고금리와 긴축 재정을 요구 (‘98년 중반부터 사회안전망 중심으로 소극적 지출)

- **재정의 조기집행과 과감한 구조조정** : 위기극복의 3가지 원칙(‘더 빨리’, ‘더 많이’, ‘더 오래’)에 따라 재정을 조기에 집행하고, 건설·조선·금융 등의 부실해소와 구조조정에 과감히 개입할 것으로 보임
 - 2009년 상반기에 집중될 경기침체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경기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재정의 60%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할 것으로 보임
- (과제) **공공부문 혁신과 과감한 재정지출**이라는 양방향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대규모 재정적자 속에서도 필요한 재원을 원활히 조달하고, 건설부문과 비정규직 중심의 일자리 이외에 좋은 일자리도 다수 창출해야 함
 - **대규모 재정적자 하에서 원활한 ‘재원조달’의 문제** : 대규모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로 재정적자 확대가 불가피함으로 효과적인 재원조달 방안을 강구해야 함
 - **녹색뉴딜을 통해 창출되는 일자리의 ‘질’ 문제** : 녹색성장 산업에 향후 4년간 50조원을 투자하여 96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발표했지만, 건설부문과 비정규직 중심의 일시적 일자리와 더불어 장기적으로 고용이 보장되고 소득 수준이 높은 ‘괜찮은 일자리’도 가능한 많이 창출해야 함

② 녹색경제의 태동

○ (의미) 기후 온난화 형성에 대비하는 한편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저탄소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가 크게 늘어나고, 경제 전반의 에너지 효율성 제고 노력 등이 증대될 것임

- 기후 온난화 진전에 대비 : 기후 온난화의 진전으로 인한 CO2 배출 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 규제에 대비할 필요 증대

- 경기 침체 극복 수단 : 세계 경기 동반 침체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침체 극복을 위한 새로운 투자처로 녹색산업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

○ (내용) 녹색성장의 실현을 위해 녹색 뉴딜 사업 추진, 녹색경제를 위한 법체계 개선, 녹색 시장 형성, 에너지시스템 개선, 녹색 신성장동력 확보 등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됨

- 녹색 뉴딜 추진 : 녹색경제로의 패러다임의 이행을 촉진하고 경기 침체 완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녹색산업 중흥과 뉴딜 수준의 부양책을 함께 추진

· 특징 : 녹색 뉴딜사업은 '한국형 뉴딜'과 '신성장동력' 사업 중 녹색 연관성과 성장·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사업과 여타 녹색 사업 중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사업을 중심으로 구성

- 녹색 경제 법체계 구축 : 기후변화대책기본법,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그린에너지 산업 발전전략 등의 법체계가 구축되어가고 있음

· 기후변화대책기본법(안) : 총리실은 2008년 8월에 기후변화대책기본법(안)을 통해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수립, 배출권거래제 도입, 온실가스 통계시스템 구축, 온실가스 배출사업자 보고의무 등을 규정함

·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 지식경제부는 2008년 8월에 본 계획을 통해 2030년까지 국가 에너지 효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에너지 저소비 사회를 만드는 방안을 추진

· 그린에너지 산업 발전전략 : 지식경제부는 2008년 9월에 2030년 생산 3,000억 달러, 고용 154만 명을 목표로 하는 본 전략을 수립

- **녹색시장 형성** : 세계적으로 녹색성장 추구를 위해 저탄소 사회 구현을 위해 탄소배출권 등 녹색산업 관련 시장이 확대될 전망
 - **탄소배출권 시장** : 2005년 교토의정서의 발효와 함께 탄소배출권 시장의 규모는 2005년 109억 달러에서 2007년 640억 달러로 6배로 급증함

- **에너지시스템 개선** : 경제사회 전반의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위한 에너지시스템의 개선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
 - **에너지 절약형 건물 확대** : 공공부문 건물을 중심으로 에너지 고효율·친환경 시스템을 확대 보급하여 민간부문으로의 확산을 위한 기반 마련
 - **고효율 조명** : 공공기관 전체조명의 20%를 2012년까지 LED조명으로 교체
 - **그린라이프** : 정부는 가정, 사무실 자동차에서 지킬 3·3·3 캠페인을 추진
 - ※3·3·3 캠페인 : i) 가정의 ③ : 가전제품 플러그 뽑기, 불필요한 조명등 끄기, 적정실내온도 지키기; ii) 사무실의 ③ : 점심시간 조명등 끄기, 사용하지 않는 컴퓨터 끄기, 엘리베이터 운행 줄이기; iii) 자동차의 ③ : 요일제 참여하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경제속도·경제운전 실천하기

- **녹색 신성장동력 확보** : 신재생에너지와 그린에너지 분야의 투자 확대를 통해 녹색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확보 노력 증대
 - **신재생에너지** :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95만 명의 신규고용 창출을 목표로 하는 가운데, 전체 에너지 중 신재생 에너지의 비율을 현재의 2.4%에서 2030년에는 65%로 비중을 높여 저탄소 에너지 비중을 확대할 계획
 - ※투자 규모 : 2030년까지 설비투자 100조 원과 R&D 투자 11조 5,000억 원 등 총 111조 5,000억 원을 투자
 - **그린에너지** : 그린에너지 산업의 생산규모는 2013년에 170억 달러, 2030년에는 3,000억 달러에 이르고 고용 규모는 2013년에 10만 5,000명, 2030년에 154만 명으로 추정
 - ※투자규모 : 9개 분야에 2012년까지 5년간 3조 원 투자
 - ※9개 분야 : 그린에너지 산업의 성장동력화를 위해 태양광, 풍력, LED, 전력IT, 수소연료전지, CTL/GTL, CCS, 에너지저장, IGCC

- (시사점) 녹색경제 활성화를 위해 녹색 부품소재산업 활성화, 녹색 금융시스템 구축, 녹색 인력 양성 등이 시급함

③ 저절단내(低節單內) IMF형 소비 패턴의 재현

○ (개념) 경기 불황에 의한 근로 소득의 확충 미흡, 부동산 및 주식 시장 침체에 따르는 자산 소득 감소로 가계의 구매력이 저하되어 지난 외환위기 시기와 같은 저절단내(低節單內)형 소비 패턴이 다시 등장할 것으로 전망

- 외환위기 시기에 가계의 근로소득과 재산소득이 크게 감소하여 구매력이 급감하여(98년 경상소득 6.8% 감소), 전반적인 소비 침체(98년 소비지출 10.7% 감소)가 나타나는 가운데 긴축을 중심으로 하는 소비 패턴이 나타남
- 향후 한국 경제가 내외수 복합 불황 국면에 진입할 우려가 높아, 외환위기 시기에 나타났던 축소지향 중심의 소비가 재현될 것으로 전망됨

< 외환위기 전후 가계 소득 및 소비 지출 증가율 >

(전년대비, %)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경상소득	13.1	12.2	6.1	△6.8	4.1	6.6
근로소득	13.4	11.9	5.5	△6.4	3.2	7.2
재산소득	2.0	20.7	3.9	△19.3	6.2	△1.9
소비지출	10.5	13.4	4.2	△10.7	13.5	9.6

자료 : 통계청 가계조사.

○ (내용) 저가형, 절약형, 단극형, 내가형(內家形; Indoor) 등의 IMF형 소비 패턴이 다시 출현할 것으로 예상

- 저가형(低價形) 소비 패턴 : 가계 구매력 급감으로 제품과 서비스의 가격이 소비자 구매 행동의 가장 큰 결정 요인이 될 것으로 보임
 - 소량 포장 상품 매출 증대 : 가계 지출의 급변동을 줄이고 낭비를 감소시킬 수 있는 소량 포장 제품의 매출 증대될 것으로 전망됨
 - 기본형 제품 수요 확대 : 여러 기능을 가진 고가의 제품보다 본래의 기능만을 담고 있는 저가의 단순 기능형 제품이 크게 각광을 받을 것으로 보임
 - 대체 상품으로의 수요 이동 :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고가형 제품 소비는 줄고 그 대체가 가능한 제품의 소비가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냄
(98년 소비지출: 소고기 △16.8%/돼지고기 4.1%, 맥주 △14.3%/소주 9.2%)

- **절약형(節約形) 소비 패턴** : 구매 및 사용 과정에서 주어진 제약조건 하에서 리스크를 줄이고 개인의 효용을 극대화하려는 추세가 확산될 것으로 예상됨
 - **신상품 판매 부진** : 신상품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효용 감소 리스크를 회피하고자 기존 사용 제품에 대한 수요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구매 이후의 효용 극대화 노력** : 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환불 요구 증가, 정비·수선을 통한 내구연한 확대 등의 알뜰형 소비가 확산될 것으로 보임 (98년 의류·신발 수선료 소비지출 13.8%, 정비·수리비 지출 1.4%)
- **단극형(單極形) 소비 패턴** : 전반적인 경제 불황과 사회 분위기 침체로 모든 계층의 소비가 부진할 것으로 예상됨
 - 일부에서 극심한 경기 침체기에 저소득-고소득 층간 소비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말하고 있으나, 실제 외환위기 당시 모든 계층의 소비가 감소됨 (98년 1분위소비지출 Δ 8.7%, 2분위 Δ 13.8%, 9분위 Δ 9.8%, 10분위 Δ 10.4%)
 - 또한 일부에서는 오히려 명품 브랜드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으나, 실제 외환위기 당시 가장 타격을 받은 소매업계는 백화점 부문이었음 (98년 백화점 불변판매액지수 Δ 16.0%, 대형소매업 43.6%)
- **내가형(內家形; Indoor) 소비 패턴** :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하고자 자가(自家) 밖에서 이루어지는 소비 활동이 크게 축소될 것으로 전망됨
 - **음식료품 소비 증가** : 외식비가 감소하고 대신 가내에서 직접 요리하는 추세가 확산됨에 따라 음식료 재료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보임 (98년 외식비소비지출 Δ 20.8%, 밀가루·면류구입 16.4%, 낙농품구입 7.2%)
 - **관광·레저 비용 감소** : 특히 소득 감소시 외식비와 더불어 가장 먼저 줄이게 되는 관광·레저 비용에 대한 지출도 크게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 (98년 숙박 소비지출 Δ 27.6%, 교통비 Δ 7.2%, 교양·오락비 Δ 24.0%)

○ 영향 및 시사점

- **정부** : 비용 절감 등으로 먹거리 등 생필품에 대한 안전성 노력이 요구되며, 기업들의 사후 서비스 이행 여부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가 필요함
- **기업** : 소비자의 지출 패턴 변화에 대응하여 단순형, 저가형 제품 개발에 주력할 필요가 있으며, 생산성과 효율성 제고를 통해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것임

④ 고용 빙하기의 도래

○ (의미) 경기 침체의 심화로 신규 취업자 수가 감소하는 가운데 기업의 구조조정에 의해 고용 부진이 심화되면서 고용 빙하기가 도래할 가능성이 큼

- 경기 침체 지속 : 내수경기 악화, 수출 경기의 급격한 둔화로 2008년 4/4분기 마이너스 성장은 물론 2009년 1/4분기까지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됨

· 구인구직비율은 2008년 2월 이후 9개월째 감소세에 있으며, 비농가취업자수 역시 2007년 8월부터 연속 14개월 감소세에 있음

- 기업의 구조조정 본격화 : 2008년 하반기부터 은행권을 제외한 주요 공기업의 신규 채용이 취소되었고, 일반 기업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고용 사정은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 공기업 채용 인원 급감 : 2009년 공무원 채용인원이 7,300명(7,000명 가량 감소)으로 2008년에 1/2 수준에 머무를 예정임

· 민간 기업의 구조조정 본격화 : 주채권을 중심으로 건설·조선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이 본격화되고, 국내 자동차 업계의 감산 조치로 고용 사정의 악화가 지속될 전망이다

- 고용 창출력 약화 지속 : '2005년 산업연관표 부속 고용표'에 따르면 전 산업의 취업계수가 2005년에는 8.7에 그쳐 1995년 14.8, 2000년 10.9에서 지속 하락 추세에 있음

· 2007년 OECD 평균 고용률은 66.6%인데 반해, 한국은 그보다 2.7%p 낮은 63.9%를 기록하여, 경제 성장률은 5.0%로 OECD 평균 성장률 2.6%보다 2.4%p 높아 신규 고용 창출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함

※ 취업계수란 불변가격 산출액 10억원당 소요되는 취업자수를 의미하고, 이는 [취업자수(명)/산출액(10억원)]으로 산출됨

○ (트렌드) 청년층의 니트(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족 확산. 청년 프리터(Freeter = free + arbeiter)의 장년화, 고학력의 경력 단절 여성의 증가, 고령층 실업의 심화, 고용 취약 계층의 실업 급증 등으로 고용 사정의 급속한 악화가 예상됨

- **니트(NEET)족의 증가** : 교육도 받지 않고, 취업의지도 없으며, 직업 훈련에도 참가하지 못한 15~29세까지의 청년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2008년 11월 현재 비경제활동인구 중 그냥 '쉬었음'이 전년동월대비 8만 명 증가하여 133만 명에 달함
 - **청년 프리터(Freeter)의 장년화** : 정규직 취업의 곤란으로 아르바이트와 같은 비정규직부터 출발한 청년 프리터(Freeter)들이 30대 후반까지도 안정된 직장을 구하지 못해 불안정 취업자로 남는 청년층의 증가가 예상됨
 - 2008년 8월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에 의하면, 비정규직의 비자발적 선택 비중이 59.8%로 EU 15개국의 16.1%(2000년 기준)에 비해 현저히 높음
 - **고령층 실업의 심화** : 경기 침체에 따른 고용 부진으로 과거 경제 발전에 대한 풍부한 경험이 있는 실버 세대의 재취직이 어려워지면서 고령층 실업 현상이 심화될 전망이다
 - OECD 기준 55세~64세까지의 고령임금근로자비율이 2007년 11월 51.1%에서 2008년 11월 50.3%로 감소함
 - **고학력의 경력단절 여성 증가** : 경기 침체로 육아 및 가사에 의한 일시 휴직이 실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다수의 고급 여성 인력이 경제 활동을 포기해 고급 여성 인력의 실망실업자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됨
 - 2008년 11월 현재 비경제활동인구 중 육아와 가사가 전년동월대비 12만 명 증가한 683만 명에 이르러 전체 비경제활동인구의 44.9%에 달함
 - **고용 취약 계층의 실업 급증** : 장애인, 소수자 등의 고용 취약 계층의 실업 급증으로 재정 부담이 증가하고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음
 - 2008년 378억 원이었던 긴급복지비를 2009년 489억 원으로 확대하고, 취약 계층의 자녀들에 대한 장학금이 확대될 예정임
- (시사점) 청년층, 여성 및 고령층 등 우수 인력의 고용 유지를 위한 정부, 노사 간의 노력이 필요함
- 창업 분위기 조성, 일자리 나누기(Job Sharing), 임금피크제 도입 등 고용 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대응 마련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⑤ 해외투자의 국내 귀환

○ (의미) 생산비용 절감 및 시장 확대를 목적으로 생산거점을 해외로 이전했던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경기 침체, 투자 환경 악화 및 기업 간 경쟁 심화에 따른 고부가가치 산업 보호를 위해 국내 복귀가 증가할 전망

- **글로벌 경기 침체** : 경기 하락에 따른 글로벌 수요 위축과 기업비용 절감 노력으로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사업이 상당히 축소될 것임
 · 2008년 하반기 이후 지속된 글로벌 금융위기가 실물 경제 침체를 가속화 시키면서 세계 경제 성장률도 둔화될 것으로 예상

- **투자 환경 악화** : 주요 투자국인 중국과 베트남이 최근 외국인 기업에 적용하던 조세감면 조치를 축소하였고, 임금 상승도 지속되면서 투자환경이 갈수록 악화
 · KOTRA가 중국, 베트남에 진출한 기업 850개 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08 Grand Survey"에 따르면, 57.1%가 향후 해당국 경영 환경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조사

- **고부가가치 산업 보호** : 고부가가치 제품군이 국내 기업의 주요 수출 상품으로 대두됨에 따라, 기술 유출 방지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고부가가치 제품의 해외 설비투자가 국내로 복귀
 ·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핵심기술 보호와 관련된 고부가가치 제품의 기술개발 투자가 필요하고, 관련 산업의 클러스터 형성을 통해 성장을 극대화

○ (내용) 2009년에는 중국 등으로부터 국내 회귀, 대기업의 생산 지역 이원화 전략 등장, 수도권 내 해외 공장 유턴 증가, 지방자치단체 탈중국 기업 유치 경쟁 심화 등의 현상이 나타날 것임

- **중국 등으로부터 국내 회귀** : 생산원가를 낮추기 위해 중국에서 대부분의 제품을 생산해 온 업체들이 현지 임금 상승 등으로 국내 생산 비중을 늘릴 것임

- 중국 생산 비중을 70~80% 정도 유지해온 여성 의류 브랜드 스푼(SOUP)은 2009년에는 한국 생산 비중을 현재보다 20% 정도 늘릴 것이고, 영캐주얼 브랜드 톱보이, 쿠아는 한국 생산 비중을 2008년 말부터 10~20% 늘리고 있음
- **대기업의 생산 지역 이원화 전략 등장** :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을 자국 내에서 생산하고 상대적으로 저부가가치 제품은 해외 생산 기지에서 양산하는 생산 이원화 체제를 운영하게 될 것임
 - 핵심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해외 거점에서는 기존 제품을 생산하고 핵심첨단기술 제품은 자국 내에서 생산하는 쪽으로 생산 전략을 변경
 - 이는 급상승하고 있는 한국의 이미지, 메이드 인 코리아 효과를 활용하게 되어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음
- **수도권 내 해외 공장 유턴 증가** : 수도권 공장 규제 합리화 조치가 2009년부터 시행되면 중국진출을 계획한 기업이나 진출한 기업들의 국내 회귀 가능성이 증가할 것임
 - 일본의 수도권 규제 완화는 해외로 이전했던 공장들이 되돌아오는 계기가 되었으며 2002년 7.4% 감소했던 수도권 설비투자가 2005년, 2006년 두 자릿수대로 증가
- **지방자치단체 脫중국 기업 유치 경쟁 심화** : 지방 정부는 지역 특구 조성 등 적극적인 투자 환경 개선을 통해 脫중국하는 기업들을 유치하여 경제 침체를 극복하는 발판을 수립하고자 할 것임
 - 전라남도의 경우, 상하이에 있는 '전남투자유치사무소'를 통해 진출 기업과 상담하며 기업 유치를 벌이고 있음
- **(시사점) 정부는 국내로 귀환하는 기업들의 정착을 위해 저렴한 산업 단지를 조성하고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을 위한 환경을 제공해야 할 것임**
 -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의 생산비용 절감을 위해 저렴한 산업 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으로 개성공단을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산·학·연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기업의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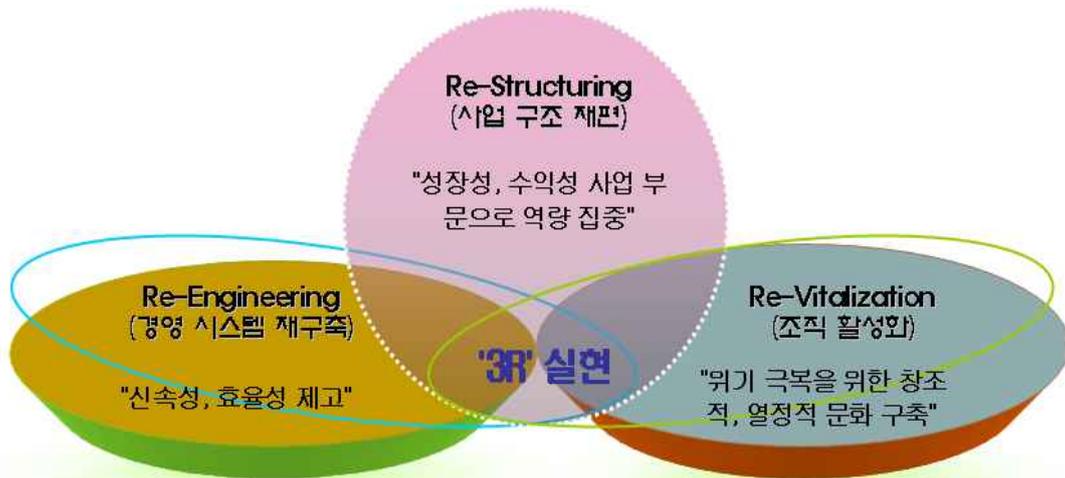
⑥ 효율성 기업 경영으로의 복귀

○ (의미) 국내 경기가 급속히 침체되고 기업들의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국내 기업들이 지난 IMF 외환위기 후 10여년 만에 다시 '3Re' 경영을 추구할 전망이다

- '3R'e은 사업구조 재편(Re-Structuring), 경영시스템 재구축(Re-Engineering), 조직 문화 활성화(Re-Vitalization) 등을 가리킴

- '3Re' 경영은 생존뿐만 아니라 성장 방향으로의 재편을 함께 실현
- '3Re' 경영은 당장의 생존을 위해 불필요한 사업을 매각하거나 철수하는 축소 지향적 방향보다는 미래의 성장을 위해 핵심 사업이나 확보해야 할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개

< '3Re' 기업 경영 체계 >



○ (내용) 3Re 경영은 주요 국내 기업들의 핵심 전략으로 확산되어갈 것임

- 사업구조 재편(Re-Structuring) : 비수익 또는 저수익 사업을 매각하고, 성장성, 수익성 있는 사업 부문으로 사업 구조를 재편

- **사업통합** : 기업(그룹)내 흩어져 있는 연관성 높은 사업을 하나로 통합
 - *사례 : 삼성그룹내 삼성전자와 삼성SDI의 OLED 사업 통합
- **사업독립** : 성장성있는 사업들로 체제 강화를 위해 분사 또는 별도의 독립된 사업부문으로 승격
 - *사례 : 삼성테크윈의 디지털 카메라 사업 독립, LG화학을 B2B와 B2C사업 부문으로 분할

- **경영시스템 재구축(Re-Engineering)** : 감원이나 비용 절감, 불필요한 업무 제거를 통해 업무 처리의 효율화와 신속화를 제고하는 경영 시스템 재구축을 단행
 - *사례 : LG그룹의 신구매시스템 구축, 두산그룹의 중장비 사업 계열사들의 공동 생산 및 마케팅 전개

- **조직 문화 활성화(Re-Vitalization)** : 위축된 조직을 추스리면서, 성장성 분야로의 기회 포착을 위해 창조적이면서 열정적인 조직 문화를 유인하는 활성화 활동을 전개
 - *사례: 현대그룹의 신조직문화 4T 활동 전개

- (시사점) 3Re 추진은 대내외적 경쟁력있는 사업 기반을 갖추어 업계를 재편하는 결과를 초래함

- 호황기에 기업이 큰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위기 하에서 성장과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3Re 경영을 적극 전개하는 것이 필요

⑦ '확장에서 생존'으로 사업 전략 전환

○ (의미) 2009년은 기업 경기가 급속히 위축되면서 기업들의 경영 전략에서 "확장형 사업 전략" 대신 "생존형 사업 전략"이 강조될 것임

- 생존형 전략의 개념 : 불황기 매출 및 이익 감소의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선제적으로 기업의 사업, 재무, 지배구조를 견고히 하는 일체의 자구행위
- 사업구조 : 비수익 사업부문을 매각하고 핵심역량에 집중함으로써 안정적인 사업 포트폴리오를 강화
- 재무구조 : 투자성 자산을 처분하거나 비용 절감을 통해 부채비율을 낮추고 유동성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현금성 자산의 비중을 강화
- 지배구조 : 주가 급락기에 자사주 매입을 확대하거나 우호 지분을 확보하여 기업가치는 유지하고 인수합병 위험은 헤지

- 증가하는 생존형 전략 : 한편으로는 경기침체가 심화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부실 확산을 사전방지하기 위한 정부와 채권 금융기관의 구조조정 요구가 커지면서 기업들의 생존형 전략 구현이 점차 증가할 전망
- 경기침체 : 올 상반기에 국내외 경기가 더욱 침체하면서 한계기업은 물론 건전 기업까지 불황에 대비한 생존형 전략이 확산될 전망
- 생존을 위한 선제적 구조조정 : 건설업과 조선업 등 동반부실의 뇌관이 될 수 있는 업종을 중심으로 강력한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자구형 생존 전략의 강도가 깊어질 전망
- 특히, 외환위기시에는 사후적으로 조속한 부실 처리가 핵심이었다면, 현재는 생존을 위해 부실 확산을 사전 방지하는 데 주력

○ (내용) 생존형 전략의 실행방법은 적극적인 포트폴리오 재편, 획기적 비용절감, 전략적 리스크 관리 강화 등임

- 적극적인 포트폴리오 재편 : 캐논은 일본의 장기 불황이 닥치기 직전까지 사업 다각화를 통한 공격적인 성장을 추구했으나 불황 시작과 동시에 적극적인 포트폴리오 재편으로 재도약에 성공

- 태양전지 사업 등 사업 다각화를 위해 벌려놓았던 적자 사업들은 철수 또는 매각하고, 핵심기술을 보유했던 복사기와 프린터 사업에 집중
 - 대신 복사기와 프린터 사업을 통해 보유했던 광학기술을 활용해 디지털 카메라 개발을 선도하여 업계 선두로 도약
- **획기적 비용절감** : 장기 침체 상황에서는 10% 정도의 경상비 절감을 뛰어넘는 20~30% 이상의 획기적인 비용절감 노력을 통해 경쟁력 향상을 도모
 - 델(Dell)은 2000년대 초 IT 버블 붕괴에 따른 불황으로 매출과 이익이 추락하자 PC 조립과 생산을 대만에 아웃소싱하여 원가를 획기적으로 절감
 - 델은 획기적 원가절감으로 2001년 PC 시장이 5% 축소되는 상황에서도 10% 이상의 매출 성장을 달성
- **전략적 리스크 관리 강화** : 불확실성이 커지는 경기 침체기에는 기업 조직 내 리스크 관리 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 전사적 리스크를 통합 관리
 - 미국 상장기업의 10% 이상이 기업의 리스크 관리를 총괄하는 CRO(Chief Risk Officer)를 두고 리스크를 사전 모니터링하고 사후에도 관리
 - 불황기일수록 재무 리스크, 환경변화 리스크, 영업 리스크 등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여 불확실성에 대비하여야 함
- (영향 및 시사점) 글로벌 경기침체로 당분간 생존 위주의 전략이 중심이 되겠지만 경기 회복기를 대비한 필수 투자와 기업·산업 구조개선은 지속
- **경기 회복기를 대비한 투자** : 경기 침체기 이후 경기 회복기를 위한 녹색 성장과 신성장동력에 대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추진
 - **기업·산업구조 개선** : 단순히 생존을 위한 경영 축소에만 관심을 갖지 말고 대책을 마련, 기업과 산업의 비효율 부문을 제거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구조개선 대책을 마련

⑧ 6R 불황 비즈니스의 성업

○ (의미) 불황으로 인한 소득 감소와 위기감 증가로 가계와 자영업자, 기업 모두 비용절감과 위험감소 지향의 비즈니스 선호현상이 강해질 것임

- 세계 동반 경기침체로 인한 자산 디플레이션(Deflation) 효과로 가계의 자산 및 소득감소 현상이 발생해 소비감소와 현실회피 현상이 뚜렷해질 것임
 - 신제품 구매보다는 기존 제품을 재활용하거나 수선해 사용하는 서비스 선호가 확산되면서 비용절감을 위한 소비패턴이 정착될 것임
 - 한편, 위기감 등 불안감 극복과 현실회피 방안으로 유흥이나 오락에 대한 욕구도 강해지면서 관련 비즈니스 성업도 예상됨
- 기업과 자영업자들은 매출감소로 에너지, 물자, 마케팅 비용 등 비용절감에 집중하는 한편, 사업 구조조정을 위해 리스크관리에 집중할 것임
 - IMF 당시에 성황이었던 위험관리 등 경영자문과 취업대란 및 실직사태로 인한 창업자문 관련 비즈니스도 다시 부활할 가능성이 높음

○ (내용) '09년에는 수선(Reform), 재충전(Refill), 재활용(Recycling), 위험관리(Risk), 보상(Reward), 오락·도박(Roulette)의 6R 비즈니스가 유망함

- 수선(Reform)형 비즈니스 :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신제품과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어 관련제품 판매와 서비스가 온라인 중심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 재봉틀, 구두수선 상품, 구두굽 리폼 등 의류, 신발 등 생필품의 DIY 수선용 제품이나 서비스 비즈니스에 대한 인기가 높아질 것임
- 재충전(Refill)형 비즈니스 : 기존 용기를 활용하는 대신 내용물을 재충전하여 사용하는 재충전형 비즈니스가 IMF 이후 다시 확산될 것임
 - 화장품, 각종 세제 등 가정용 소비재와 프린터 카트리지 등 사무용품, 일정 금액 안에서 맥주와 육류 등을 무제한 리필해주는 비즈니스를 들 수 있음
- 재활용(Recycling)형 비즈니스 : '아나바다'(아끼고 나눠쓰고, 바꿔쓰고, 다시 쓰는)와 같은 중고장터 사업 또한 불황기의 유망 비즈니스로 거론됨

- 특히 지난 몇 년간 각종 동아리 모임이 활성화되면서 생성된 사이트를 중심으로 관심물품의 중고교환 비즈니스가 확대될 전망이다
- **위험관리(Risk)형 비즈니스** : 경기침체로 인한 매출감소, 비용절감을 위한 구조조정 등 미래에 대한 위험관리를 자문하는 경영컨설팅 수요가 발생할 것임
 - 개인의 경우 불황으로 인한 실직 및 취업이 어려워지면서 창업컨설팅에 대한 수요와 은퇴자들의 자산관리에 대한 자문 수요도 증가할 전망이다
- **보상(Reward)형 비즈니스** : 소비자의 제품구매 촉진을 위해 경품이나 쿠폰 등을 통해 고객의 비용을 일정 한도 보상해주는 비즈니스가 활성화 될 것임
 - 기존에 제품 구입이나 신용카드에 적립되어 있는 마일리지를 제휴업체를 통한 제품구매 시 활용하는 Payback도 불황비즈니스에 주목할 만함
- **오락·도박(Roulette)형 비즈니스** : 소득감소로 인한 심리적 허탈감과 회피 욕구 증가로 로또, 경마 등 '한탕'을 쫓는 사행성 비즈니스가 증가할 것임
 - 한편, 비용대비 여가활용도가 높은 컴퓨터 게임에 대한 수요도 국내외 인프라 구축과 전 세계 동반 경기침체로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음
- (시사점) 기업들은 불황 타파를 위한 기회로, 정부는 녹색성장 산업육성을 위한 대국민 홍보 기회로 활용해야 할 것임
 - **정부** : 국민들의 Reform, Refill, Recycling 비즈니스 선호현상을 녹색제품의 홍보와 연계시켜 신성장 산업군의 수요로 전환시키는 데 집중해야 할 것임
 - 불황상품 선호 현상은 태양전지, LED 등 저에너지 제품과도 연관성이 높음
 - 홍보를 통한 수요전환으로 녹색산업 육성을 기반마련에 집중해야함
 - **기업** : 제조업은 제품개발을 Reform, Refill 중심으로 전환하여 상품 다양성과 경쟁력을 확보하고, 소비촉진을 위해 Reward 촉진방안을 활용해야함
 - 게임업체들은 제품의 해외시장 확대를, 오픈마켓 등 인터넷 유통 업체들은 중고장터 등 P2P 비즈니스의 확산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⑨ D-트라우마(Depression Trauma) 현상 확산

○ (의미) 미국발 글로벌 경기침체가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의 상황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우려가 '공포' 및 '사회문제'로 전이되는 D-트라우마 현상이 확산될 전망

- 'D-트라우마'는 Depression¹⁾과 Trauma의 합성어로 경기침체에 따른 충격으로 발생하는 경제·사회의 현상을 나타내는 신조어
- 미국의 부동산발 금융위기 및 실물경기 침체²⁾로 인하여 2009년 주요국의 경제성장률 하락³⁾ 등 글로벌 경기침체는 대공황 이후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될 것이라는 공포가 확산
- 경기침체, 자산가치 하락 그리고 기업의 강력한 구조조정 등 '디프레션(Depression) 공포'가 새로운 경제 트렌드를 형성하고 사회적인 문제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

○ (내용) 세계적인 디프레션(Depression)의 충격으로 경제활동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서민층을 중심으로 고용불안 등에 따르는 범죄 증가 등 사회불안 요소가 확산되며 도박 등 사행성 산업이 번져나갈 전망

- 불황이 초래한 경제 양극화 현상 심화 : 자산가들 중심으로 현금 보유 및 증여가 증가하는 한편, 서민층 중심으로 소득 수준 감소 등으로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행성 사업의 호황이 예상되는 등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전망
- '현금보유 및 증여' 증가 : 자산가 등 부유층의 경우 향후 자산가치의 추가 하락 기대에 따라 현금보유를 늘리는 한편, 처분이 어려운 자산들을 자손에게 증여하여 '증여세 절약' 및 '수익률 전가'의 '기회'로 활용⁴⁾

1) Depression은 호황의 반대 개념으로 생산, 소비 등 경제활동이 쇠퇴, 침체된 불황 또는 불경기 상태임
 2) 2008년 10월 미국공급관리협회(ISM)의 제조업 업황 지수는 26년 만에 최저수준인 38.9를 기록
 3) IMF에 의하면 미국(1.4 → -0.7%), 유럽(1.2 → -0.5%), 일본 (0.5 → -0.2%), 한국(3.5 → 2.0%), 세계경제(3.7% → 2.2%) 등 2009년 경제성장률이 대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
 4) IT 버블붕괴 및 추가하락으로 증여세신고는 2000년 3만 명대에서 2001년 4만9천명, 2002년에는 5만5천명으로 증가함

- **사행사업 호황** : 소득감소, 실직 등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악화되면서 로또, 도박, 인터넷 게임 등 사행성 사업 증가 전망⁵⁾
- **범죄 확산** : 불황기에는 경제적 어려움 및 사회적 불만으로 인한 범죄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임
 - 사내공금 횡령⁶⁾, 생필품 절도 등 생계형 범죄 증가
 - 경제적인 현실 비관 및 불만의 폭발로 인한 우발적인 살인 등 강력범죄 증가⁷⁾
- **가정 파탄 양상 증대** : 불경기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어려움이 증가함에 따라 가정불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
 - 2008년 3분기 가계부채는 약 4,055만원으로 최대 규모를 기록한 반면, 실질 소득은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2.9% 감소
 - 대구지법 가정지원에 따르면 올 1월부터 10월 말까지 접수된 전체 이혼사건은 8,50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3% 증가
 - 또한 청소년들의 기출 및 범죄행위⁸⁾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시사점) 글로벌 디프레션의 단기적인 충격을 최소화하고 경기침체 및 사회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장기적 비전 제시가 필요함**
 - 유동성 조절 등 금융시장의 안정과 고용확대 등 경기회복을 위하여 적절한 시기에 정부예산의 조기집행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불안심리 확산을 막기 위하여 사회 안전망 제고, 범죄 강력 단속 등 서민층을 위한 대책이 요구됨
 - 장기적인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바이오산업, 대체에너지 개발, 에너지 효율성 향상 등 신성장사업의 투자실적 향상이 필요함

5) 2008년 11월 로또 판매액은 전년 동기대비 7% 증가, 특히 나눔 로또 판매량은 매년 12% 감소하였으나 9월과 10월 들어 4% 증가, 연간 마사회의 경마 매출액은 연간 13% 증가 예상, 강원랜드 3분기 순이익은 사상 최고를 기록하고 매출은 전년 동기대비 14% 증가함

6) IMF과동이후인 1998~1999년, 카드대란 이후 2004~2005년에 택시 기사들의 사납금 횡령 고소사건이 급증했으며 2008년 12월 광주지역 5개 일선경찰서에 따르면 사납금 횡령 고소가 잇따라 접수되고 있음

7) 2009년 1월 5일 한나라당 황영철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발적 살인 건수가 2006년 473건에서 2007년 493건, 2008년 11월말 현재 583건으로 크게 증가하였음

8) 2008 경찰백서에 따르면 2000년까지 14만3,018명이었던 소년범은 2005년까지 83,477명으로 줄다가 이후 증가세로 돌아서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27.6%나 늘어 115,661명으로 증가함

⑩ 대칭적 상호주의 남북 관계 추구

○ (의미) 남북 경협을 남북 상호 간 공정한 호혜를 강조하는 대칭적 상호주의 원칙과 보다 철저한 법·제도에 기반하여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

- 대칭적 상호주의 남북 관계 배경 : MB 정부 출범 후 대북 정책 방향이 기존의 민족 공조와 대북 포용 정책 중심에서 국제 공조와 상호주의 위주로 전환되었기 때문

- 국제 환경 : 오바마 정부의 경제 및 중동 현안 우선 해결 방침으로 2009년 상반기까지는 급진적인 북핵 및 북미 관계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
- 인식 변화 : 남북 관계 개선 필요성에 대한 여론이 비등해지면서 상호주의에 입각한 남북 관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⁹⁾
- 북한 내부 : 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과 대남 부서의 재정비 등으로 남북 경협보다는 중국·러시아 및 EU와의 협력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

○ (내용) 북핵 및 북한 인권과 연계한 경협 강조, 지원성 물자 감소에 따르는 상업적 비중 증가, 경협의 제도화 개선 노력, 경협 위축 등이 예상

- 북핵 연계의 경협 원칙 고수 : 원칙에 근거한 남북 관계 접근을 강조하며, 북핵 문제의 진전 여부에 따라 구체적 사업 추진 여부가 결정될 전망
- 인권과 연계한 식량 지원 : 대규모 인도적 지원과 경협 추진을 국군포로와 납북자 등의 북한 인권 문제 개선과 연계 추진이 예상
- 지원성 물자 감소로 상업적 비중 증가 : 2009년 남북 교역은 2008년에 이어 지원성 물자가 위축됨으로써 상대적으로 상업화 정착이 심화될 전망
 - 2008년 1~11월 중 교역 규모는 16.9억 달러로, 이 가운데 상업적 거래가 15.9억 달러를 기록하여 93.9%를 차지 (상업적 거래에 있어서도 개성공단 사업 등 투자 부문의 비중 증대)
 - 2009년에도 지원성의 비상업적 거래의 감소로 상업적 거래가 총교역의 약 8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보임

9) 현대경제연구원, 『남북 관계 현안에 대한 국민 여론 조사』, 2008. 11. 12.

- 남북 경협외 제도화 개선 노력 : 경협외 안정적 추진 기반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확충 노력에 주력할 것으로 보임
 - 남북 경협외 제도 기반 확충 : 금강산 관광지구에 ‘금강산 관리위원회’ 설립 추진, 남북대화 재개시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가동 문제 협의 준비 등
 - 교류 협력 관련 절차 간소화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행정 절차 간소화 등 사업자의 편의 제고를 위해 협의

- 남북 경협외 위축 : 북핵 협상 지연과 남북 관계 경색 등으로 2009년 남북 경협외는 제한적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
 - 개성공단 사업 차질 : 국내외 경기 침체로 인한 주문 감소와 12. 1 조치로 인한 통행 제한 등으로 기존 사업은 물론 신규 투자가 상당히 위축될 전망
 - 관광 사업외의 중단 : 관광 사업 중단은 관련 교역과 투자 사업에도 부정적 영향 우려

- (시사점) 현 국면 타개를 위한 돌파구로서 경협외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신정경분리 원칙하에 경협외 활성화를 위한 기반 확충 노력이 절실함
 - 통일과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내부 컨센서스 확대 :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여 내부 동의를 확보해야만, 경협외 확대도 적극 추진 가능
 - 국민 여론 조사에 따르면, 남북 경색 타개 방안으로 금강산 관광 재개와 경협외 확대 등 적극적인 경제 교류 확대(35.8%)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응답

 - 제도 정비에 기반한 안정적 남북 경협외 체계 구축 : 남북 경협외의 법·제도화 진전으로 투자의 안전성을 확보
 - 이를 위해 투자보장과 이중과세 방지, 청산결제, 상사분쟁 조정절차 등의 실질적인 4대 남북 경협외 합의서와 3통(통행·통관·통신)이 실현되어야 함

 -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 : 신정경분리 원칙하에, 민간의 기존 경협외 사업은 수익성과 경제성에 근거한 기업 자율적 판단 하에 계속 추진되어야 함
 - 신정경분리 원칙이란 민간 경협외가 당국 간의 정치 논리에 의해 속도 조절돼서는 안 된다는 것임

주간 경제 동향

□ 실물 동향 : 생산자물가 둔화세 지속

○ 12월 생산자물가는 국제원자재 가격 하락과 경기침체에 따른 수요위축으로 공산품과 서비스의 내림세가 지속되어 전월대비 1.7% 하락, 전년 동월대비 5.6% 상승함

- 공산품은 음식료품과 담배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원유 및 비철금속의 하락으로 전월대비 2.7% 하락, 전년동기대비 7.0% 상승하였음
- 농림수산품은 연말 수요증가와 출하감소로 채소와 과일 등이 상승하여 전월대비 2.9% 상승, 전년동월대비 7.9% 상승하였음
- 서비스는 금융(1.0%)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운수(-0.9%), 전문서비스(-0.7%), 광고(-0.6%) 등의 하락으로 전월대비 0.4% 하락, 전년동월대비 1.7% 상승함

< 주요 실물 경제 지표 >

(전년동기대비, %)

		2006	2007		2008						
			연간	3/4	4/4	1/4	2/4	3/4	11월	12월	
경기	경제성장률	5.1	5.0	5.1(1.5)	5.7(1.6)	5.8(0.8)	4.8(0.8)	3.8(0.5)	-	-	
	수요	소비재판매	4.1	5.3	7.1	4.5	3.9	2.5	1.1	-5.9	-
		설비투자추계	8.9	8.6	0.7	9.2	-0.9	0.1	6.1	-18.0	-
		건설수주	9.0	19.3	-5.6	29.5	-3.9	-6.1	-22.8	-35.4	-
		수출	14.4	14.1	9.4	18.2	17.4	23.1	27.1	-19.0	-
공급	광공업생산	8.4	6.8	5.9	10.8	10.6	8.6	5.6	-14.1	-	
	취업지수(만명)	2,315	2,343	2,361	2,358	2,305	2,387	2,373	2,382	-	
	실업률	3.5	3.2	3.1	3.0	3.4	3.1	3.0	3.1	-	
	수입	18.4	15.3	7.3	25.9	28.9	30.5	43.0	-14.9	-	
대외 거래	경상수지(억\$)	54	60	44	32	-52	-1	-86	21	-	
	무역수지(억\$)	161	146	45	27	-65	3	-80	1	-	
물가	생산자물가	0.9	1.4	1.2	3.0	5.1	9.0	11.3	7.8	5.6	
	소비자물가	2.2	2.5	2.3	3.4	3.8	4.8	5.1	4.5	4.1	

주 : 경제성장률의 ()안은 계절조정 전기비 기준, 진한 글자체는 최근 발표.

□ 금융 동향 : 원화 환율 상승세 지속

○ (해외 금융 시장) 미 국채 금리 소폭 상승

- 금리: 사상 최저치 하락에 따른 차익실현 매물과 대규모 확대재정 정책을 위한 발행 물량 증가에 따른 수급 부담 등의 영향으로 전주말 대비 소폭 상승 (국채 10년물 : 2.37→2.44%)
- 환율: 오바마 미 정부의 확대재정정책으로 미국이 경기침체에서 상대적으로 빨리 벗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확산되면서 유로화에 대해 강세를 보인 반면, 미국 증시 부진으로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되면서 엔화에 대해서는 약세 시현 (\$/€ : 1.3921→1.3703, ¥/\$: 91.84→91.20)

○ (국내 금융 시장) 주가, 채권, 원화값의 트리플 약세

- 주가: 주 초반 대규모 외국인 주식투자자의 매세가 유입되면서 1,200p를 돌파 하였으나, 주중반 이후 미국 증시 하락 등으로 투자심리가 악화되면서 하락세로 반전하였으나 전주말 대비 상승 (1,157.4→1,180.9)
- 금리: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3.26%까지 하락하였으나, 기준금리 인하가 선반영되면서 단기금락에 따른 차익실현 매물 출회 등으로 상승세로 반전하여 전주말 대비 상승 (국고채 3년 수익률: 3.42→3.48%)
- 환율: 12월 외환보유액이 9개월만에 증가로 전환되고, 연초 외국인 주식투자가 순매수세로 하락세로 출발하였으나, 은행권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급등세로 반전하여 전주말 대비 상승 (1,321.0→1,343.0)

○ (전망) 원화 환율의 상승에 따른 조정으로 소폭 하락 전망

< 주요 금융 지표 >

		2007		2008				2009	
		3/4	4/4	1/4	2/4	3/4	4/4	1.2	1.9 ¹⁾
국내	거래소 주가	1,946.5	1,897.1	1,703.9	1,674.9	1,448.1	1,124.5	1,157.4	1,180.9
	국고채3년(%)	5.46	5.74	5.10	5.90	5.74	3.41	3.42	3.48
	원/달러	915.1	936.1	990.4	1,046.0	1,207.0	1,259.5	1,321.0	1,343.0
해외	DOW	13,896	13,265	12,263	11,350	10,850	8,776.4	9,034	8,742
	Nikkei	16,786	15,308	12,526	13,481	11,259	8,860	8,860	8,876
	미국채10년(%)	4.59	4.02	3.87	3.97	3.82	2.21	2.37	2.44
	일본채10년(%)	1.69	1.51	1.45	1.60	1.47	1.18	1.17	1.31
	달러/유로	1.4267	1.4593	1.5788	1.5848	1.4092	1.3972	1.39721	1.3703
	엔/달러	114.80	111.65	99.70	106.22	106.11	90.64	91.84	91.20
	두바이(\$/배럴)	76.64	89.06	97.66	136.65	90.60	34.66	42.88	45.71

주 : 1) 해외지표는 전일(1.8) 기준.